

 <b>인천광역시</b>		<b>보 도 자 료</b>		<b>경 추</b> <b>재외동포청 개청</b>
		배포일자	2023년 6월 14일(수) 총 2매	
담당 부서	국제협력과	담당자	• 아시아팀장 이창훈 ☎440-3201 • 담당자 최혜원 ☎440-3202	
사진(이미지)		<input type="checkbox"/> 없음 <input checked="" type="checkbox"/> 있음	참고자료	<input checked="" type="checkbox"/> 없음 <input type="checkbox"/> 있음
보 도 시 점		배포 즉시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정복 시장, 베트남 하이퐁시 당서기 만나 협력 방안 논의**  
**- 하이퐁시 당서기, 인천 경제자유구역 개발 및 재외동포청 유치에 큰 관심 -**

인천광역시(시장 유정복)는 14일 자매도시인 베트남 하이퐁시 당서기 레 띠엔 찌우(Le Tien Chau)를 비롯한 대표단이 인천을 방문해 유정복 시장을 면담하고 재외동포청 유치 등 관심 사항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면담은 세계 최고의 국제공항과 항만, 인천경제자유구역(IFEZ)등 훌륭한 기반시설(인프라)을 갖춘 인천의 발전상을 확인하고자 하이퐁시의 요청으로 이뤄졌다.

베트남 하이퐁시는 하노이, 호치민과 더불어 베트남의 3대 도시다. 항구도시이자 수도권을 배경으로 가장 빠르게 성장하는 지역으로 인천과 유사한 점이 많은 도시다.

유정복 시장은 “하이퐁 당서기님의 방문을 진심으로 환영한다” 고 말했다. 이어 “최근 인천은 750만 동포들을 네트워크로 연결하는 재외동포청을 인천에 유치해 1,000만 인천시대를 열었다” 며 “특히 베

트남에는 17만 명, 하이퐁시에는 4,000명의 한국 재외동포가 거주하고 있으며 대한민국에는 약 24만 명, 인천에 8,500명의 베트남인이 거주하고 있으므로 40만 양국 국민의 권익증진을 위해 당서기님의 각별한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고 말했다.

레 띠엔 쩌우 당서기는 “유정복 시장님의 환대에 감사하고 재외동포 청 유치를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며 “인천이 한국에 있는 베트남 국민을 따뜻하게 맞아 주시고 재외동포의 네트워크 구축을 위해 세심한 배려를 함께 해 주신 것처럼, 우리 시도 양 도시 공동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긴밀히 협력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고 말했다.

한편, 시는 하이퐁시와 1997년 7월 자매결연 이후 꾸준한 인도적 의료사업지원과 문화교류, 투자, 교역 등 지속적인 교류 협력을 통해 공동 발전을 도모하고 있다.

※ 관련 사진은 행사(12시) 종료 후 인천시 홈페이지

‘인천시 인터넷방송’(<http://tv.incheon.go.kr/>) ‘포토인천’에 게시될 예정입니다.